

GS파워, GE와 에너지사업 협력

연료전지·ESS 신기술 개발 ... GS 계열사 글로벌 EPC 진출도

GS파워(대표 손영기)가 GE와 협력해 에너지사업을 추진한다.

2014년 11월 GE의 제프 이멜트 회장이 방한했을 때 GS칼텍스 허동수 회장과 의견을 나눈 것이 MOU(양해각서) 체결로 이어진 것으로, GS파워의 손영기 사장과 GE코리아의 강성욱 총괄사장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양사는 국내 발전소 성능 향상, 연료전지, ESS(Energy Storage System) 등 신기술 개발을 비롯해 북미 등 신흥시장의 인프라 개발 및 참여 등에서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실한 업무협약 이행을 위해 양사의 고위관리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도 조직한다.

GS파워 손영기 사장은 “GE와 협약으로 첨단기술과 글로벌 사업역량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며 “2030년까지 신규발전소 4기 건설과 해외사업 진출로 국내 최고의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GE코리아 강성욱 총괄사장은 “양사는 에너지사업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공동성장의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GS계열사와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EPC(설계·구매·시공)시장 공동 진출 및 사업협력 분야도 검토할 예정이며, 차세대 에너지 기술인 연료전지와 ESS 분야에서도 공조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5/01/23>